

상한가 행진을 위한 잠재시장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의 아키텍처로 대변되는 분산 처리 환경의 최대 문제점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관리 소프트웨어가 등장했으며 DB관리 툴 또한 분산 처리 환경에서 효과적인 DB 관리와 최적화를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이다. DB관리 툴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해 살펴봤다. <글/박민식 기자>

1. 시장현황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증권회사 전산실에 근무하는 김과장은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는 데이터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이다. 또한 김과장은 졸업 이후 IBM의 DB2만을 관리했는데 올해는 신규 업무상 NT용 MS SQL 서버를 새로 구입했다. 때문에 새로운 DBMS의 기능 익히는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얼친데 덩친격으로 김과장은 지난 구조 조정의 여파로 전산실 인원이 줄어들어 벌써 몇 개월째 야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고생한 만큼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잦은 DB 오류와 성능 저하로 상사들로부터 핀잔을 듣기 일쑤이고, 요즘 같은 인터넷 환경에서는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도 폭주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 동창회에서 만난 A회사 동창 DBA(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다. 그 친구는 "나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시간에 퇴근을 하고 여가를 즐기지"

하는 것이다. 그는 폭주하는 데이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DB에 대한 오류 수정 작업도 적다는 것이다. 분명히 그 친구 회사도 지난해 구조조정을 통해 감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DB관리 자동화 툴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 친구는 "DB 오류 조짐이 보이면 내 핸드폰으로 자동 연락이 오지. 그뿐 아니라 오류를 분석해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고 더불어 향후 데이터의 양까지 예측해 주지."하는 것이다.

위의 상황은 가상의 상황이지만 실제로 DB관리 툴을 사용한 기업과 사용하지 않은 기업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DBA의 어려움 증가

위 상황에서 본 것처럼 DBA들은 IT 환경 및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의 컴퓨팅 환경은 메인프레임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서버와 네트워크 컴퓨팅 환경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은 더 많은 사용자, 더 많은 데

이터, 더 많은 서버를 지원하고 관리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또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관계형 DB는 현재 그 규모나 사이즈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입초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업무진행의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즉 RDBMS 서버수가 늘어남에 따라 24시간 연속적인 시스템감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단지 감시를 통해 문제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게 되었다.

플라티넘 테크놀러지의 김희수 부장은 "DBA는 데이터의 증가를 비롯해 백업 업무 증가, 테이블스페이스 활용의 미흡, 속도 저하, 기존 데이터의 재구축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부족한 자원과 복잡해지는 분산 환경 속에서 데이터의 무결성, 가용성, 통제 및 관리에 골치를 썩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BA들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부서마다 증가하는 요구사항에 시달리고 있다. BMC의 방학재 대리는 "우선적으로 CIO들은

DBA에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대 한 빠른 대처와 비용 절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업부서에서는 더 복잡한 통 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애플리 케이션 관리자들은 사용자들을 위한 더 나은 애플리케이션의 접근, 응답시 간 및 장애 처리 등의 가용성, 복구 지 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잡다한 업무 대행

DB관리 툴은 효율적인 DB를 위한 데이터 자원 관리, 보안 관리, 모니터 링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위한 튜닝 자료 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관계자는 “세탁기 가 가정 주부들을 손빨래에서 해방시 켜듯이 DB관리 툴은 DBA가 잡다한 일상 업무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즉 기존 의 라인 모드 또는 텍스트 모드에서 수 행되던 많은 DBA 작업을 GUI 환경 에서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며 다 양한 모니터링 기능과 DB에 대한 관 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 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 웨어인 것이다.

또한 관리자의 실수 또는 운영환경 에 의한 장애 발생시 가장 손실이 발생 될 수 있는 부분이 DB인데 이러한 장 애발생 여부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 는 신속한 장애 대비책을 마련해 이를 통한 손실의 극소화를 꾀하는 것이 바 로 DB관리 툴의 역할이다.

조직 운용의 관점에서 DB관리 툴의 도입으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이 절약된다는 것이다. 관리 대상 규모가 클 경우와 다양한 옵션을 이용하는 경우 그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인적·물적 절감 효과

이미 위에서 주지한 사실이지만 DBMS를 라인 모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숙련에도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도입 초기 상태에서 리플리케이션 및 비디오 서 버 옵션들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면 그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DB관리 툴은 대부분의 작업을 직관 적인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실수 할 소지를 줄여준다. 데이터 애플리케 이션 등의 변경에 대한 빠른 적용, 시 스템 진단 및 자원 사용 기획 수립, DB 튜닝 등에 대하여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하며 그 결과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면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인식부재가 확산의 걸림돌

국내 DB관리 툴 시장은 아직까지 도입 단계이며 사용하는 업체도 대용 량의 DB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전 산실 위주이다. 아울러 판매업체도 소 수 외국 업체와 국내 일부 기업만이 취 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솔루션 의 도입시 관리효율과 안정성을 우선 으로 고려하는 반면 국내 실정은 비용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외국 시장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DB

관리 툴의 가격은 DBMS 엔진보다 5-10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국내기업 들이 도입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DB관리 툴 벤더는 “기업 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이지 DB엔진 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 정보를 관리해주는 DB관리 툴이 엔진보다 비 싼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DBA의 노력여부에 따라 DB 는 충분히 관리되어 질 수 있다는 최고 경영진의 잘못된 의식도 국내 DB관리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다. 아울러 DBMS를 판매하는 업체의 영향도 크다. 국내 DBMS 벤더들은 전문적인 DB관리 툴에 대한 추천보다 는 기본적으로만 제공되어지는 자체 툴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를 사용자에게 주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DB관리 툴 시장은 경영진의 의식 부재를 비롯해 고가의 가격, 그리고 DBMS 벤더들로 인한 국내 DBA의 잘못된 인식이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II. 제품 현황

DB 관리용 솔루션은 크게 DBMS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툴과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에서 제공되는 전문적인 툴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아 울러 기능 및 구성 요소에 따라 통합 관리형, DB 전문형, 기능 특화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합 관리형은 시스템, 네트워크, DB, 애플리케이션 등 기업 정보 시스 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툴로

서 BMC의 패트롤, CA의 유니센터 제품이 있다. 비교적 고가의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듈별 구입도 가능하다. DB 전문형은 DB 관리를 위한 툴로써 오라클의 OEM, 플라티늄의 DB 비전, 삼성SDS의 DB 디렉터 등이 있다. 기능 특화형으로는 저장 공간의 재조직화를 위한 플라티늄의 Tsreorg가 있다.

기능 특화형 제품을 제외하고는 각 툴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특별히 특화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시스템의 규모 및 사용 현황, 관리자의 능력, 적용 범위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지난해 DB관리 툴 시장은 DB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부진했지만 올해는 경기회복에 따라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소득이 없더라도 아프면 병원을 찾아오게 된다. DB도 마찬가지로 보유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툴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시장은 충분한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며 올해 시장을 밝게 전망했다.

한편 CA의 플라티늄 인수는 시장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왜냐하면 현재 CA의 유니센터는 DB관리 툴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플라티늄 인수로 대폭적인 기능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BMC 소프트웨어

BMC는 메인프레임 및 오픈 시스템 분야에서 다양한 DB관리 툴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오라클, 인포믹스, 사이베이스 등의 다양한 DB와 썬, IBM, HP와 같은 여러 플랫폼을 지원하는 패트롤이라는 중앙집중식 관리 툴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BMC는 메인프레임에서 오픈 시스템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올해는 오픈시스템에 비중을 둘 방침이다. 최근 선임된 주수영 사장은 "BMC는 메인프레임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와 함께 매출도 오픈시스템보다 2배 이상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시장 방향은 오픈시스템이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BMC는 영업력을 오픈 시스템에 집중해 시장을 선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BMC는 이런 전략에 따라 영업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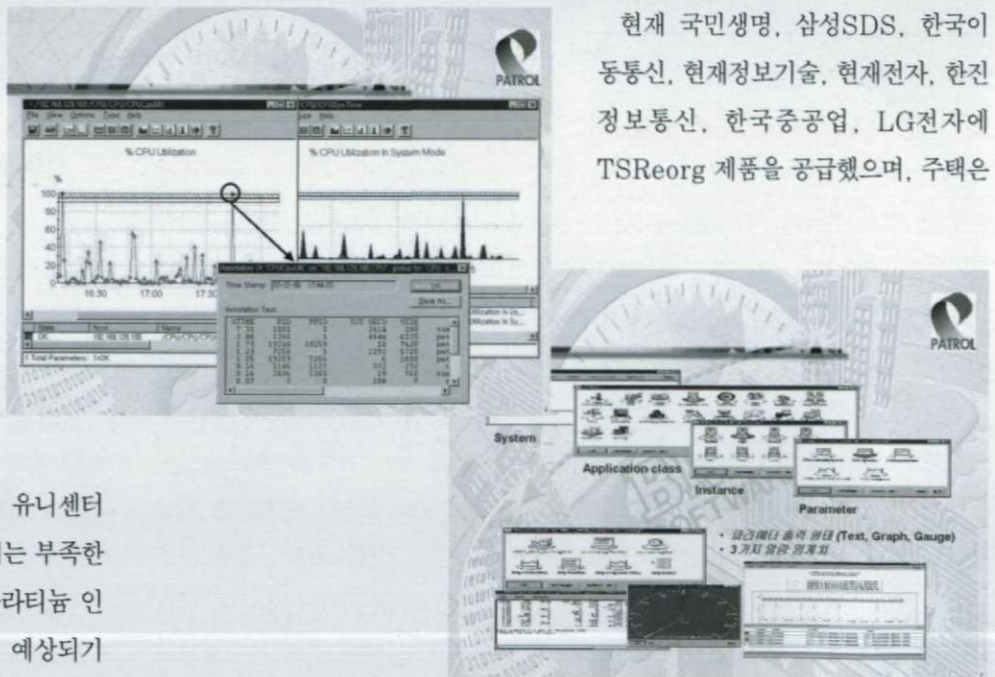
을 메인프레임과 오픈시스템 분야로 이원화했으며 이찬영 이사를 오픈시스템 영업을 위해 새롭게 영입한 상태이다.

플라티늄테크놀로지

플라티늄은 메인프레임과 오픈시스템 환경을 지원하는 다양한 DB관리 툴을 보유한 전문업체이다. 특히 메인프레임 DB2 관리솔루션 부분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갖고 있으며 성능 및 튜닝 솔루션을 비롯해 데이터 가용성 솔루션, 백업 및 복구 솔루션, DB관리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개발 솔루션 등 여러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픈 솔루션 환경에서는 분산 DB의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DB비전을 비롯해 서버 비전, 와이어 탭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스크탑 시장에서도 SQL를 처리하지 않고 손쉬운 아이콘 조작으로 분산 DB환경을 관리하는 데스크탑 DBA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 국민생명, 삼성SDS, 한국이동통신, 현재정보기술, 현재전자, 한진정보통신, 한국중공업, LG전자에 TSReorg 제품을 공급했으며, 주력은



(그림) DB관리 툴인 패트롤 실행 화면